

해외리포트

일본 농어업 6차 산업화 지원책 및 추진 현황



권오성 |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전임연구원

국내 유일의 농어업 6차산업화 중간지원조직인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그리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의 농어업 6차산업화 관련기관과 선진사례 현장을 돌아보았다.

“일본에서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농어촌의 6차산업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황영모 2011). 지난 2010년 “6차 산업화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6차산업종합화사업계획 인정”, “6차산업화서포트센터(이하 서포트센터) 설치 운영”, “서포트 인재육성 및 플래너제도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서포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역할에 대해 담당자 인터뷰와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일본 농림수산물

1) 6차산업화 추진 배경 및 목적

일본은 국내 식품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농수산물의 가격 침체와 생산 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농어업의 생산액과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물에서는 농어업의 소득증대를 통해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도 농어촌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농어업의 생산과 가공·판매의 일체화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촉진하는 등의 농어업 6차산업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농림수산물의 부가가

치를 높여 농림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은 물론 식량자급율의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6차산업화사업의 지원책

(1) 인적자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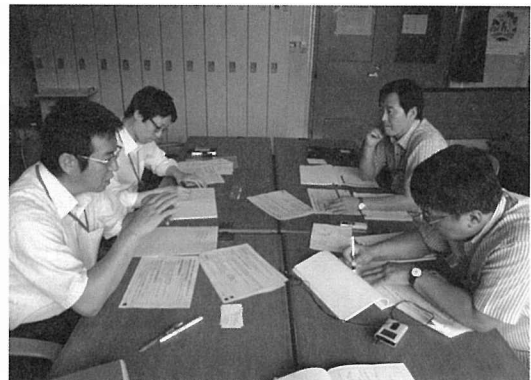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 종사자 등의 신사업 창출 등 (이른바 “6차 산업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6차산업종합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 대신(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농림어업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플래너 지원” 제도이다. 2011년도에는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플래너 중 각 지역의 서포트센터 별로 필요한 분야의 플래너를 최대 5명까지 계약하여 수요가 있을 때마다 상담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는 농림어업자가 직접 플래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포트센터 상담원이 1차 상담을 통해 적합한 분야의 플래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플래너 간 경쟁을 유도하여 충실한 상담 및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표 1〉 플래너의 종류와 역할

플래너의 종류	인원	자격 및 대상	활동내용	활동보수
일반 플래너 (농림수산성 선별)	400명	- 본업을 가지고 있는 경영컨설턴트, 디자이너 등 농수산물 관련 경영, 생산, 유통 가공과 마케팅,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 등	- 농림어업자들의 6차산업화 종합사업계획 구상과 상담 지원 - 종합사업계획 인정 후 보조금 신청 관련 지도 - 사업진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지도 등	- 활동보수 - 교통비 - 자료구입비
볼란티어 플래너	500명	-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도 농가 등	- 플래너와 동일	- 교통비 - 자료구입비
서포트 인재	100명	- 대학교수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 볼란티어 플래너와 플래너가 대응할 수 없는 분야 지원	- 활동보수 - 교통비 - 자료구입비

일반적인 플래너의 활동시간은 하루 2시간 정도이며, 활동시간, 장소, 상담내용, 활동시간 등의 업무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플래너 제도는 필요로 하는 농어가, 농가공업체 등에 무료로 제공되며, 상담횟수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지역 별로 서포트센터 예산에 따라 상담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2013년도 중점사업으로 다양한 현장의



〈농림수산성 6차산업화전략실〉

해외리포트

〈표 2〉 재정지원제도와 혜택

구분	주요내용	제도에 따른 혜택
대출제도	무이자 융자자금(개량자금)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연장	- 상환기간 : 10년 → 12년 - 거치기간 : 3년 → 5년 - 융자한도 : 개인(5천만엔, 법인·단체 1억 5천만엔)
	단기 운전자금(뉴 슈퍼 S 자금) 대출	- 대출가능(금리 1.5%) - 개인 : 1 천만 엔 - 법인 : 4 천만 엔 ※ 식품의 가공·판매에 관한 자금을 대한 채무 보증을 정부가 지원
보조금 지원	6차산업 창출 종합 대책과 6차 산업 종합 추진 사업으로 신상품 개발, 판로 개척 등에 대한 보조	- 보조율 : 일반 1/2 → 인정업자 2/3 (신상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생산 장비 대여 시 리스크와 판로 개척을 위한 팜플렛 작성 비용도 지원 포함)
	6차산업화 추진 정비 사업으로 농업 법인 등이 새롭게 가공·판매 등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시설 정비 보조	- 보조율 : 일반 보조 없음 → 인정사업자 1/2
교부금 교부	산지 킬러에 의한 농산물의 계약 거래에 대해 인정사업자의 리스크 경감지원	- 리스크 경감금액 등

인적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산학연계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농림수산성이 주도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2) 재정지원

앞에서 언급한 6차산업종합화사업계획이 농림수산 대신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대출제도, 보조금지원, 교부금 교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3) 시사점

일본 농림수산성의 6차산업화사업 지원시책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6차산업화에 대한 홍보와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6차산업화법이 재정되고 관련사업이 추진된 지 1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6차산업화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프트센터를 통한 강연회, 사례보고회를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플래너의 역량강화를 위해 등록된 1,000여명의 플래너들을 대상으로 상담기법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다.

둘째, 6차산업화는 절대 행정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분야이므로 현장의 인적역량을 잘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수산성에서는 “산학연계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농림수산성이 직접 추진하는 “산학연계네트워크 구축”은 행정, 소비자, 농림어업



자, 2차 산업, 3차 산업, 연구자, 금융업계, 기술계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로서 창설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800여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연계, 정보발신, PR, 교류회, 정보수집,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2. 시즈오카현

1) 농업현황 및 6차산업화 추진배경

시즈오카현의 농업생산액은 1990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며, 농업관련 취업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1990년 33.1%에서 2010년 61.6%로 증가하였다. 2009년 가와가츠 縣지사의 방침에 의해 1년여 기간 지사와 농어업인 간 의견교환을 거쳐, 농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생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경영의 다각화, 농산물의 가공 유통 혁신(6차산업화)을 3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6차산업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3〉 시즈오카현 자체 발굴 6차산업화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후지노구니 신제품 셀렉션	- 신규상품개발지원과 연계한 자체 발굴 사업으로 6차산업화사업에 의해 개발된 가공식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지원	
후지노구니 食과農 건강 만들기 캠페인	- 전시·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食에 관한 이벤트 제공	
시즈오카 농상공연대 자금조성	- 2009년부터 현 자체사업으로 추진 - 2012년 자금총액: 10억 엔 - 운용 가능한 사업비: 어자수입의 1.5% 금액 - 지원규모: 최대 200만 엔까지 100% 보조 - 2012년 지원 사업: 14개 사업 지원	
요리장인 인정제도	- 시즈오카 식문화 창조를 통해서 농림수산업의 진흥, 발전에 공헌하고, 시즈오카현 농림수산업 및 식문화의 진흥에 공헌하고 있는 요리사를 표창하고자 하는 사업 - 대상 및 선발기준은 현역의 요리사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시즈오카현산의 식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시즈오카현산의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 - 지역의 식문화 창조에 공헌하는 등 농림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요리사 ※ 2012년에 50명을 선정하여 현재 총 263명이 선정되어 활동	<p>■ 요리장인 인정자 소개 책자</p> 
시즈오카 Food Selection	- 인정기준은 상품의 판매방식과 유통관리 체계가 명확하고 생산 및 제조공정의 관리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어야하며, 시즈오카 농림수산물인정제도 등 각종 인정 취득한 상품으로 생산, 제조, 유통, 판매에 있어서 탁월한 전략과 기술보유와 일정 규모이상의 판매 실적이 있어야 함 - 인정혜택으로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인정 마크 사용 가능 - 2012년 현재 총 53건 인정	

해외리포트

2) 6차산업화 사업 추진현황

시즈오카현은 7개 농림사무소와 1개 수산기술연구소에 6차산업화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의 6차산업화 사업과는 별도로 시즈오카현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시사점

시즈오카현은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배치하여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었다.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상공연대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한편,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 발굴과 조리사를 대상으로 명인 선정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프랑스의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발굴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여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활용을 확대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치바현 6차산업화센터 (NPO법인 치바농업네트워크)

1) 6차산업화센터 위탁사업 추진배경

NPO법인 치바농업네트워크는 지역 주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2009년 1월 출범하였으며, 54명의 회원 중 50명이 치바현 공무원 퇴직자로 대부분 농업행정업무 유경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치바현 6차산업화서포트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1년에 이어 2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포트센터의 구성인원은 필수 구성인원인 총 5명으로 총괄책임자 1인, 회계업무 담당자 1인과 전문상담원으로 분야별 현장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시즈오카현청 방문)

2) 6차산업화 사업추진 현황

공모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서에는 조직체계, 목표, 사업내용, 사업추진 방법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며, 사업내용 예산 내에서 플래너 활용, 기획서 작성지원, 설명회 등의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6차산업화서포트센터 위탁사업비는 2011년도에 1,300만 엔이었으나, 관동농정국과의 계약이 7월에 이루어져 12월까지 사용액이 약 500만 엔으로 정산 후 반납금액이 약 800만 엔이었다고 한다. 2012년도 사업비는 1,500만 엔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보급개발

6차산업화설명회 등 각종 교육 및 연수회를 개최하여 6차산업화에 대한 이해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총 14회 개최하여 656명을 교육하였다고 한다.

(2) 상담건수

2011년도에는 중소기업진단사 자격증, 디자이너, 영양사 등의 자격이 있는 5명의 플래너를 계약하여 총 162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이중 디자이너의 라벨 및 포장디자인 관련 상담건수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진단사의 계획서 작성 등의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에서 상담문의가 들어와 센터소속지원이 1차 상담을 실시한 실적이 200건이며, 6차산업화 지원 대상인지, 어떤 플래너가 적합한지 등을 알아보는 정도이다.

이러한 플래너의 활동보수는 2011년도의 경우 건당 2,000엔 이었으나, 2012년도부터는 시간당 6,400엔과 교통비는 실비로 계산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3) 6차산업 종합화사업계획 인정지도

치바현의 2011년도 6차산업 종합화사업계획 인정 목표는 10건이었으나, 자료집에 발표된 실적이 11건이고, 발표되지 않은 실적을 포함하면, 실제 서포트센터의 활동에 15건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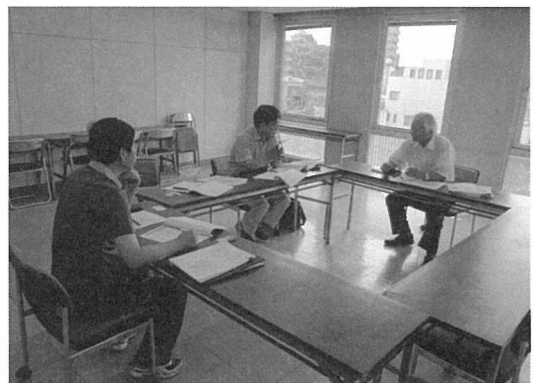
(4) 6차산업화연수회 강사활동

서포트센터에 종사하는 직원 및 상담원은 각종 연수회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치바현 서포트센터 직원 5명의 강사활동 실적은 220명을 대상으로 총 5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사점

치바현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는 첫째, 농업관련 공무원 은퇴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NPO법인을 기반으로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었다.

둘째, 6차산업화 설명회 등 다양한 사업의 홍보가 서포트센터의 주요사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6차산업화 성공사례와



(치바현 6차산업화서포트센터(NPO법인 치바농업네트워크))

해외리포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방법 및 개별상담 등으로 농림어업자들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이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6차산업화 중간지원조직인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의 역할과 기능재정립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소규모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농가공품의 판로에 대한 공통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일본 역시 가족단위 영세농민들이 만든 가공품 제품은 규격화, 규모화 등의 문제로 농협유통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농가에서 판로를 개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충남도내 소규모 농기업과 같은 고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으로 기존 플래너 외의 판매와 관련된 전문가를 연결하여 유통업체, 도매상에 대한 판매를 알선해주는 등의 도움을 준다거나, 농가에서 가공품을 만들기 전에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충남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대응하고자하는 다양한 고민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황영모, 충남농어업 6차산업화 포럼 발표자료(2011. 11. 29)
2. 농림수산성, 6次産業化の推進について(2012)
3. 시즈오카현 경제산업부 마케팅 추진과, 시즈오카현의 6차산업화 지원시스템(2012)
4. 치바현 6차산업화서포터센터, 6차산업화종합추진 위탁사업 개요(2011)